

‘롤란드 베인턴’의 세계교회사 제10장은 ‘관용과 승인’이라는 소제목으로 시작합니다. 바돌로뮤 학살과 칼레 해전과 30년 전쟁은 세계사와 교회사를 통틀어 매우 유명하고도 심각한 사건인데 바로 ‘관용과 승인’에 대하여 유럽과 전세계가 그 필요성을 깨닫는 과정이라고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3대 사건을 연결하면 제2차 백년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1. 성 바돌로뮤 축일의 학살사건(1572년)

가. 학살의 배경과 전조 단계

- (1) **종교 개혁의 확산**: 16세기 중반, 프랑스 내에서 칼뱅주의를 따르는 개신교도들이 증가하며 위그노(Huguenots)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됨.
- (2) **가톨릭의 탄압**: 프랑스 왕실과 강력한 가톨릭 귀족 가문인 기즈 가문은 위그노를 이단으로 간주하고 탄압
- (3) **1562년 3월: 바시(파리 근처) 학살 사건** — 기즈 공작이 위그노 예배 중이던 신도들을 공격하면서 전쟁의 도화선이 됨. **74명 사망, 100여 명 부상**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음.
- (4) **화해 시도**: 1572년 8월, 위그노 지도자 나바르의 앙리(훗날 앙리 4세)와 프랑수아 2세의 누이 마르그리트의 (정략) 결혼식이 열림.
- (5) **콜리니(프랑스의 해군 제독) 암살 시도와 실패**: 1572년 8월 22일, 개신교 신자들을 보호하던 콜리니는 파리 시내에서 총격을 받아 팔에 중상을 입었음. 암살자는 기즈 가문과 연관된 용병으로 추정되며, 가톨릭 강경파의 계획이었던 것으로 추정됨.

나. 학살 참사의 진행과정

- (1) 위그노 측은 콜리니 암살 시도에 격분하며 왕실에 항의했고, 파리 시내에 모여 있던 수천 명의 위그노가 보복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음.
- (2) 이에 카트린 드 메디시스와 기즈 가문은 선제적 학살을 결심, 바르톨로뮤 축일 밤(8월 24일)에 성당의 종소리를 신호로 대규모 학살이 시작됨.
- (3) 가톨릭의 군대가 콜리니 제독은 물론 위그노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며 살해함
- (4) 학살은 파리를 넘어 리옹, 툴루즈, 보르도 등 다른 도시로 퍼졌으며 최소 2만~7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함.

다. 참사의 여파

- (1) 로마 교황은 승리를 축하하고 기념 메달을 제작하였으나, 영국과 독일과 네덜란드 등의 개신교 국가들은 연대의식이 강화되고, 프랑스를 비난하였으며 **프랑스에서 내전이 20여년간 연속되었음.**
- (2) 전쟁을 종식하려는 노력도 앙리 4세를 통하여 결실을 맺게 되었고, 1598년에는 낭트킵령을 통해 **개신교인 위그노들에게 제한적으로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었음.**
- (3) 서구사회에서 종교간의 관용과 화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계기가 시작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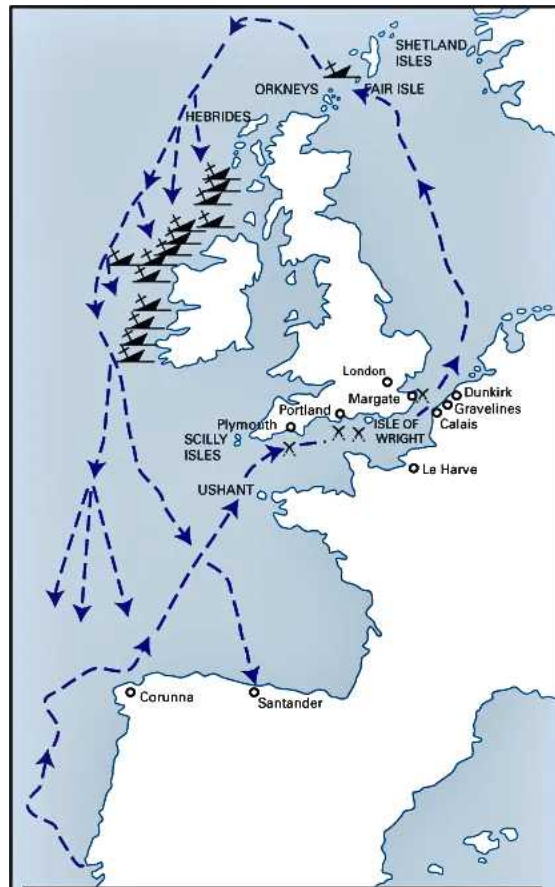
2. 칼레 해전(1588년)

가. 해전의 배경과 전조 단계

- (1) **종교적 갈등:** 스페인은 가톨릭의 중심국가였고,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의 통치아래 프로테스탄트 국가로 변화하고 있었음. 특히 메리 1세(가톨릭)와 결혼했던 펠리페 2세는 엘리자베스를 ‘불법적인 여왕’으로 간주함.
- (2) **영국의 해적 행위와 스페인 무역 방해:** 엘리자베스 1세는 프랜시스 드레이크 같은 해적을 지원해 스페인 무역선을 공격함. 이는 스페인의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가져오는 금과 은을 약탈하는 행위로, 펠리페 2세의 분노를 초래함.
- (3) **네덜란드 독립 전쟁과 영국의 개입:** 스페인은 당시 네덜란드의 반란을 진압 중이었고, 영국은 프로테스탄트 네덜란드를 지원하고 있었음. 펠리페 2세는 영국의 개입을 차단하고 유럽 내 스페인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함.
- (4) **정치적 목적:** 펠리페 2세는 가톨릭 신자인 메리 스튜어트를 영국 왕위에 앉히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음. 메리는 엘리자베스에 의해 처형되었고, 이는 스페인의 침공 명분을 강화했음.

나. 해전의 진행과정

- (1) 무적함대의 출정:
1588년 5월 28일 포르투갈의 리스본 항구에서 군함과 상선을 비롯하여 130 여척에 약 3만명의 병력을 싣고 영국 본토를 침공할 계획으로 출발함.
- (2) 영국 해군의 대응:
플리머스 (Plymouth)에서 출항하여 소규모로 첫 교전 및 포틀랜드 (Portland)에서 2번째 교전하고 3번째로 와이트섬 (Isle of Wight)에서 교전함.
- (3) 칼레 (Calais) 해전:
스페인 함대는 프랑스 칼레 항구에 정박해 육군과 합류하려는 계획이 있음. 그러나 영국 해군은 8월 8일 불붙인 화선을 칼레항으로 보내 스페인 함대를 혼란에 빠뜨렸고, 이후 그라블린 전투로 이어졌음.
- (4) 무적함대의 패배:



무적함대는 진형이 무너지고 화약이 고갈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람도 무적함대에게 불리하게 불었으므로 스코틀랜드의 북쪽으로 돌아서 북귀하기로 결정함. 그 후로 아일랜드의 서편으로 돌아서 돌아오는 도중에(1개월 소요) 격심한 풍랑에 시달리면서 배들이 대파되고(2분의 1 손실)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인명의 손실(약 20,000명 사망)이 심각해짐. 무적함대의 천적은 불리한 해풍이었음.

다. 해전의 결과에 따른 여파

(1) 해상 패권의 변화:

스페인은 이후 해상에서의 영향력을 점차 상실하고, 그 대신 영국이 대서양 무역과 식민지 개척에 적극 진출하면서 대영제국의 기초를 다지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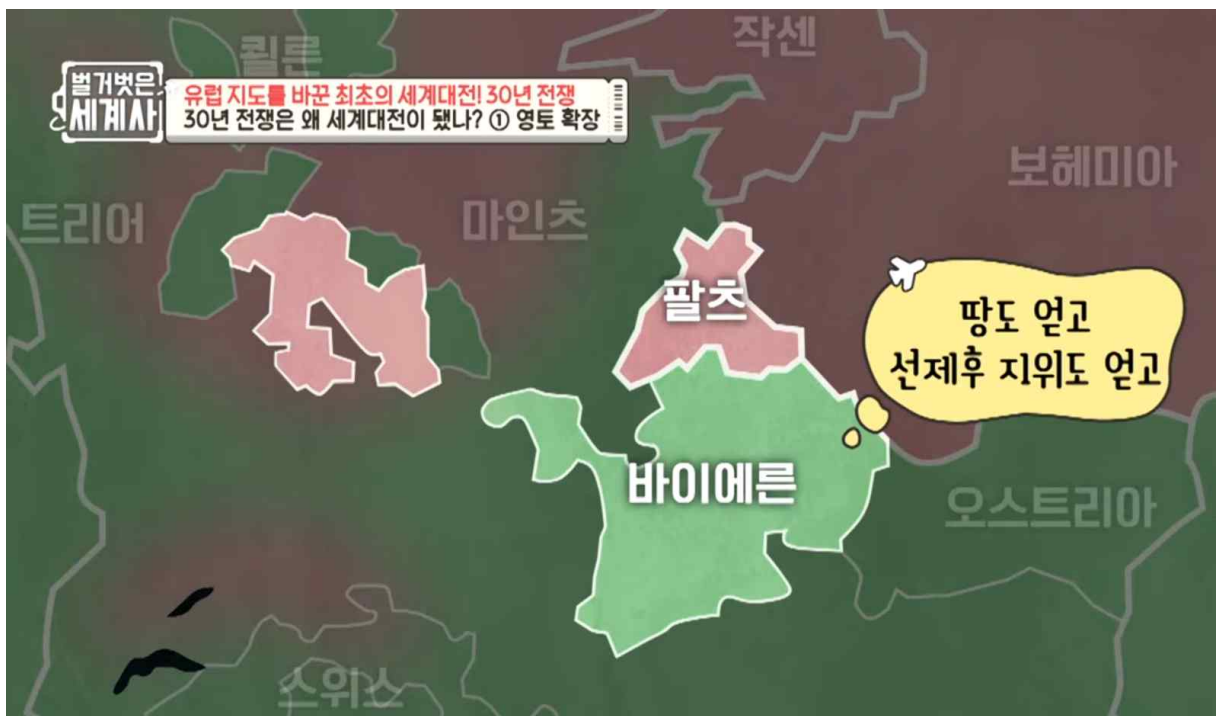
(2) 종교적 균형 변화:

가톨릭 진영은 상징적으로 타격을 받고, 개신교 세력은 자신감이 고취되어 유럽 내 종교 갈등의 양상이 변화함. 30년 전쟁의 전조라는 관측도 있음.

(3)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부상:

스페인의 약화로 프랑스가 상대적으로 강해지고, 특히 네덜란드는 해상무역과 독립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함.

3. 30년 전쟁의 배경과 전조 단계



[종교 갈등으로 시작된 30년 전쟁!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도? #highlight #벌거벗은세계사 EP.179](#)

가. 신성로마제국: (서기 800년/962년~1806년)

30년 전쟁의 무대에 해당하는 신성로마제국은 오늘날의 독일, 체코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대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동부와 이탈리아 북부까지 해당하는 광역에 분포하면서 800년 이상의 매우 오랜 역사를 자랑하였으나 서유럽에 비하면 문명이 뒤떨어지는 상태였다.

7명의 선제후가 황제를 선출하는 특이한 국가였을 뿐만 아니라 360개 정도의 자치지역들이 매우 느슨하게 연합되어 황제의 권력이 매우 약했다. 교황과 황제와 제후와 주교들이 오랜 세월동안 알력다툼한 결과였다. 루터의 종교개혁(1517년) 이후 신교도에 대한 박해가 확산

하였으나, 동시에 점차 칼뱅파도 확산하면서 제후들이 나중에는 **카톨릭, 루터파, 칼뱅파 등으로 나뉘고 장인등 상공업자들의 세력도 등장하면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되었다.

나. 슈말칼덴 전쟁과 모리츠의 배신:

슈말칼덴 전쟁(1546~1547)은 신성로마황제 카를 5세가 루터파 제후들의 동맹인 슈말칼덴 동맹(헤센, 작센, 브라운슈바이크, 안할트, 만스펠트, 마크데부르크, 브레멘, 스트라스부르, 울름 등)을 무력으로 진압하려 벌인 종교전쟁이다. **모리츠 폰 작센**은 루터파였지만 루터파를 진압하는 황제 편에 섰다. 그 결과 황제의 지원을 받아 작센 선제후의 지위를 차지했다.

다. 모리츠의 배신과 프랑스의 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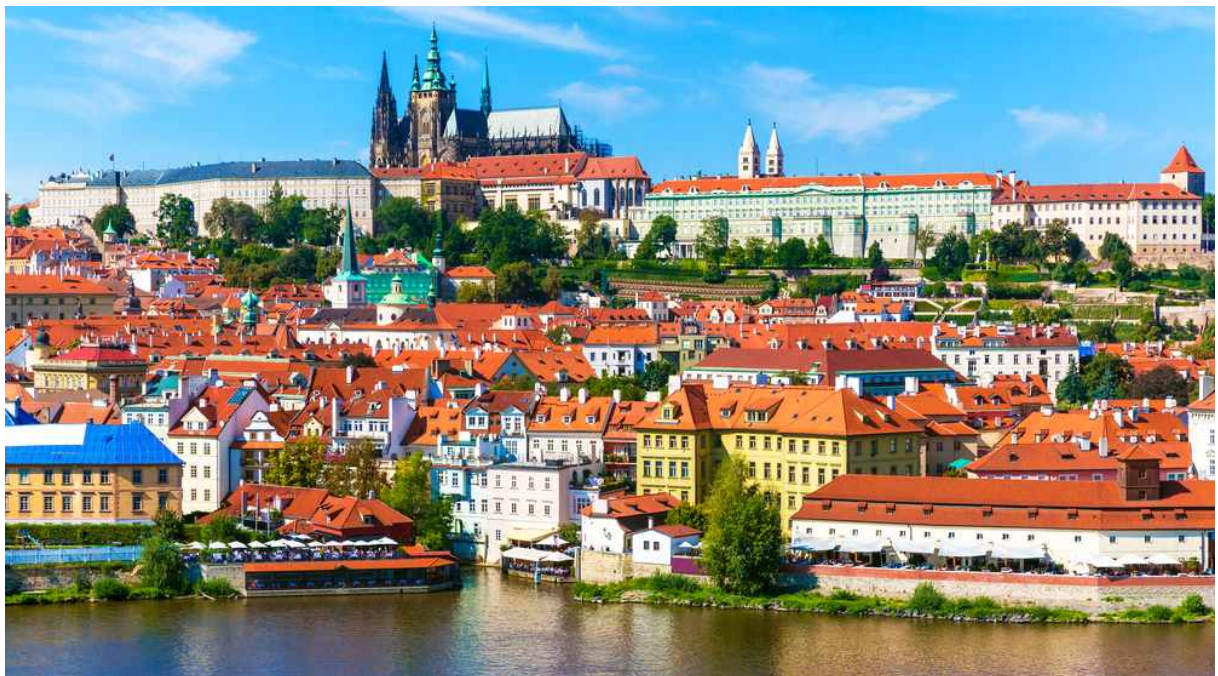
황제 카를 5세는 루터파에 대한 강경 정책을 계속 추진하며 **제후들의 자치권을 억압**했다. 이에 모리츠는 황제의 독재적 통치에 반감을 품고 1552년 프랑스 왕 앙리 2세와 비밀 동맹(파리 조약)을 맺고, 황제의 군대를 급습하여 카를 5세를 독일 남부 인스브루크에서 도망치게 만들었다. 프랑스 왕 앙리 2세는 이를 통해 **로렌 지역의 영토 확장**을 노렸다. 결국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는 루터파와의 타협을 모색하면서 종교적 관용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라.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로 이어진 종교적 타협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는 루터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제후들이 자신의 영지에서 종교를 선택(가톨릭 또는 루터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 지역의 종교는 그 제후의 종교**”라는 원칙).

4. 30년 전쟁의 진행과정과 결말

가. 보헤미아 - 팔츠 전쟁(1618~1623년) : 신교와 구교 사이의 종교 전쟁으로 시작함



수도 프라하 ('스투비플래너'라는 여행사의 자료사진임)

(1) 전쟁이 시작된 보헤미아의 배경:

보헤미아는 선제후국들 중에서 유일한 왕국이었다. 보헤미아 밖의 나머지는 공국 등이었다. 보헤미아는 14세기 중후반부터 **신성로마제국의 수도**를 거쳐서 금융, 무역, 학문의 중심지로 신성로마제국 내에서 경제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었다. 현재의 체코에 해

당하는 보헤미아가 16-17세기에 융성한 모습은 오늘날도 그 당시와 별 차이가 없다. 1606년경 프라하성은 금탑으로 재건되었다. 보헤미아는 당시 풍족한 자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건축을 실시했고 빠리와 로마에 견줄 만한 발전한 도시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 당연히 돈을 축적하게 된 귀족들의 입김이 강했다.

(2) 종교갈등과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압박: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로 루터교는 인정받았지만, 칼뱅파는 인정되지 않아 신성 로마 제국 내 개신교와 가톨릭 간의 긴장이 계속되었다. 귀족과 백성들은 왕을 압박하였고 신교의 자유를 허락받았다. 그런데 왕이 바뀌었고 새로이 왕으로 선출된 페르디난트 2세는 보헤미아의 개신교도들에게 가톨릭으로 개종할 것을 압박했다.

(3) 프라하 창밖 투척 사건:

1618년, 보헤미아의 개신교 귀족들은 프라하의 왕궁에 찾아가 가톨릭 신하 3명을 창문 밖으로 내던져 추락사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보헤미아 귀족들은 페르디난트 2세의 왕위를 박탈하고, 칼뱅파 신교도였던 팔츠 선제후 프리드리히 5세를 새로운 왕으로 즉위시켰다.

(4) 빌라호라(백산) 전투:

1620년 11월 신교 연합군은 **보헤미아 왕국, 팔츠 선제후국, 사보이 왕국, 영국의 58,000명**이었다. 로마 카톨릭 연합군은 신성로마제국 황제군, 스페인, 오스트리아, 마인츠 선제후령, 트리어 선제후령, 쾰른 선제후령, 바이에른 공국 등 **30,000명**이었다. 보헤미아의 프라하에서 서서남쪽으로 10KM 떨어진 '빌라호라'에서 전투가 있었다. 카톨릭의 군대가 대승하였고 그 결과로 신교측 귀족들의 재산은 몰수당했으며 인구의 3분의 1이 감소하였다.



나. 덴마크의 전쟁 참여(1625~1629년) : 국가 대 국가의 정치전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됨

(1) 덴마크가 참전하게 된 배경:

알사스 땅을 승전국에 해당하는 스페인이 당초의 약속대로 교두보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자 **주변의 신교국가들이 불안감을 느꼈다.** 덴마크는 상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지금의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페루 제국까지 넓은 영토를 차지한 북해지역의 최강자였다. 덴마크 국왕 크리스티안 4세는 개신교 진영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개신교 제후들과 동맹을 맺고 영국과 네덜란드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하르츠 지역으로 진군하며 개신교 제후들과 합류하였다.

(2) 덴마크의 패배와 강화조약 체결:



1626년 루터 전투(독일 작센의 저지대)에서 덴마크군이 대패하였다. 1627년 카톨릭 연합군의 발렌슈타인은 덴마크 본토까지 진격하여 유틀란드 반도 대부분을 점령하였고 1629년 뤼베크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덴마크는 개신교 진영의 지도자 역할에서 물러나고, 발렌슈타인의 군사적 명성이 높아지고, 카톨릭 진영의 우세가 강화되었다.

다. 스웨덴의 전쟁참여(1630~1632년)

(1) 스웨덴이 참전하게 된 배경:



재미를 더해가는 30년 전쟁- 구스타브의 죽음 : 네이버블로그

스웨덴은 루터교 국가로서 독일 내 개신교 제후들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하였다. 뿐만 아니라 발트해의 패권을 확보하고 독일 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

였다.

(2) 스웨덴의 승리와 전쟁 지속:

스웨덴이 독일 북부에 상륙하고 브라이텐펠트 전투(1631)에서 가톨릭군을 대파하고 뤼첸 전투(1632)에서도 대승하였으나 국왕이 전사하여 스웨덴은 이후의 전투에서 지도력을 상실함.

라. 프랑스의 참전(1635~1643년): 종교보다 국가를 더 앞세운 프랑스가 승자가 됨

(1) 프랑스가 참전하게 된 배경:



캔버스 유화, 100×170cm, 톨레도군사박물관 소장.

•부르고뉴 십자가의 테르시오 깃발

다홍색 엑스(X)자 모양의 앤드루 십자가에 들쭉날쭉 격자가 들어간 것이 부르고뉴 십자가다. 1500년대 부르고뉴 출신 필리페가 스페인 왕에 즉위하면서 사용해 스페인 제국의 상징이 됐다. 지역별로 구성된 테르시오는 부르고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자신들만의 깃발을 보유했다.

•부대 신호로 사용한 붉은 어깨끈

당시 군인들은 통일된 제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를 구분하기 위해 단일한 색깔의 어깨끈이나 허리끈, 팔뚝리본을 착용했다. 군인들이 착용한 붉은 리본과 어깨끈은 이들이 스페인 군대임을 알려준다.

[최영진 교수의 전쟁과 미술] 달마우의 '로크루아, 마지막 테르시오' (2011) : 네이버 블로그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였지만, 합스부르크 가문(신성로마제국과 스페인)이 자국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위협으로 인식함. 리슐리외 추기경은 종교보다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며, 합스부르크 가문을 견제하려고 함. 1635년 프랑스는 스페인에 공식 선전포고함.



(2) 프랑스가 승리한 전투:

로크루아(프랑스와 벨기에의 국경) 전투(1643년 5월): 프랑스는 스웨덴, 네덜란드 등 개신교 국가들과 연합하여 스페인군을 대파하며 **결정적으로 승리함**. 이후 프랑스는 라인강 유역과 스페인령 네덜란드, 이탈리아 북부 등지에서 전투를 이어감

마. 30년 전쟁의 여파

(1) 베스트팔렌 조약(1648):

30년 전쟁이 공식 종결되었으며 프랑스는 **아르투아 지역과 알자스 일부와 로렌의 일부 지역을 획득**하고, 독일 내에서 프랑스의 영향력 확대이 확대됨. 합스부르크 가문은 권위가 약화 되고 독일 내 제후들의 자율성이 강화됨.

(2) 피레네 조약(1659):

프랑스-스페인 전쟁이 종결되었으며 프랑스는 **루시용과 세르다뉴 영토를 획득**함. 프랑스는 루이 14세가 스페인 공주 마리 테레즈와의 결혼으로 외교적 승리도 거둬. 나중에는 루이 14세의 손자 필립 5세가 스페인의 왕위를 차지하였음.

바. 30년 전쟁의 역사적 의의

- (1) 프랑스는 30년 전쟁을 통해 합스부르크의 봉쇄를 뚫고 유럽의 강대국으로 부상함.
- (2) 첫 번째 세계 대전이었다는 관측도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 전쟁으로 시작한 30년 전쟁이 후반에는 **국가(스페인) 대 국가(프랑스)의 정치 전쟁**으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사례가 되었음.
- (3) 이후 유럽은 **국가 주권과 종교 관용을 인정**하는 국제 질서로 나아감.
- (4) 교황의 발언은 그 능력이 현저히 약해짐.

생각해 볼 과제:

프랑스는 천주교 국가라는 정체성이 계속되었으나 이후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에 이르기까지 천주교와 고위급 지도자들에게 국민들이 압박을 받고 살게 되었다.

[\[유럽사\]종교는 단지 명분이었던 유럽의 30년 전쟁](#)